

저출산·핵가족 시대...자손 55명 모여 '구순' 할머니 효도잔치

영광 군서면 이영님씨 자손들 마을 주민 200명 초청 '첫째 손자' 등 이름표 새긴 옷입고 초등학교서 행사 어르신 4명 팔순행사도 ... 봉사단체 참여 신명 한마당

영광군 군서면 군서초등학교 대강당에 지난 1일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첫째 손자'라고 쓰인 윗옷을 입은 청년이 '구순' 할머니를 등에 업고 강당을 한바퀴 돌자, '첫째 아들 김중진', '손녀 사위 장승대' 등의 이름을 가슴에 새긴 수십명의 사람이 즐거움 표정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르신 백세 화상라 잔치'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김중진(69·농업)씨를 포함한 7남 1녀와 손자·손녀, 증손자·증손녀 등 4세대 55명에 이르는 일가족이 어머니이자 할머니인 이영님씨의 구순(九旬) 잔치 겸 동네 어르신들의 효도 잔치로 마련했다.

이날 효도 잔치에는 구순을 맞은 이 할머니는 물론 팔순의 마을 어르신 4명 등

지역 주민 200여명이 함께 했다. 특히 김중진씨 8남매 모두가 어머니를 모시고 영광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의 자녀와 손자·손녀 등 4세대 56명이 대가족을 구성하고 있어 큰 화제였다. 이날 행사도 이처럼 워낙 많은 가족 구성원 때문에 각각의 이름이 새겨진 윗옷을 입고 손님을 맞이하는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핵가족·저출산 시대에 8남매가 고향을 지키며 효도하는 모습이 마을 어르신들의 칭송도 이어졌다.

한없이 행복해 보이는 8남매 가족이지만, 그동안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어머니의 환갑 잔치는커녕 칠순, 팔순 잔치도 열지 못했다고 한다.

8남매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덕분에 이제

는 생활행편이 어느정도 나아졌고, 매달 1차례 모여 가족 회의를 가질 정도로 든든한 우애를 자랑하고 있다.

이번 어머니의 구순 잔치 겸 마을 어르신 효도잔치를 열게 된 것도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됐고, 8남매가 비용을 모아 열리게 됐다고 한다. 8남매의 사연을 전해들은 지역 봉사단체들도 이번 효도잔치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특히 '나르다예술단'(단장 박행임)과 '하누리 두들패'는 신명나는 공연을 펼쳐 참석자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다. 큰아들 김중진씨는 "이번 효도 잔치는 가족 모두의 뜻이 모여 열리게 된 것으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매년 한차례씩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는 효사랑 행사가 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흥군서면장은 "어머님을 물론 지역 어르신들에 대해 효도하는 마음이 이들과 가족의 아름다운 뜻과 형제애에서 나온 것 같다"면서 "8남매가 영광에 모여 오순도순 사는 모습이 핵가족 시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영광에서 '8남매 가족'으로 통하는 김중진씨 일가족이 최근 영광 군서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어머니의 구순 잔치를 열고 있다.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이주 정비사업 본격 추진

광주시, 도시공사 위탁 사업 진행 '무등산 남도피아' 테마파크 조성

광주 무등산국립공원내 원효사집단지설지구 이주 정비사업이 본격화한다. 1980년대부터 무등산국립공원 원효사계곡(해발 370m) 일대에 자리 잡은 집단시설지구는 낡은 상가와 오피스 등으로 무등산 경관과 환경을 크게 훼손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광주시는 4일 북구 흥호동 일원에 조성할 원효사 상가 이주 및 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을 광주도시공사가 시행하기로 하고 위수탁 협약을 최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달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내년 3월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61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원효사 집단시설 지구 이전과 함께 무등산 생태와 관련한 전시·홍보관,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체험시설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전체 개발 면적 13만1000여㎡ 중 원효사 상가 이주단지(4만7000㎡) 조성에는 138억원이 소요된다.

나머지는 주거복합단지과 문화체험시설 등으로 개발되며 모두 22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주단지 조성 말고도 광주호 주변의 역사, 자연환경을 살리는 한옥마

을, 인접한 생태 탐방체험관 등과 연계한 생태체험시설 등을 조성한다.

원효사 상가 이전과 함께 광주호 주변을 생태와 음식, 풍류를 느낄 수 있는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거점 '남도피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무등산 남도피아'는 광주시 민선6기 대표 문화·관광사업 중 하나로 무등산과 광주호 주변 생태 숲, 누정, 가사문학 자원 등을 연결하는 북구 흥호동, 금곡동 주변 지역을 말한다.

남도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광주시가 지난 2015년부터 유·무형의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연 10만원→20만원으로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가 연 20만 원까지 오른다. 정부는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세월호 미수습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세월호참사 피

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공포안을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미수습자의 배상금 신청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국가발전 위한 중장기전략 수립 업무 등을 담당하는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되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하고,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위원 수의 상한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전남경제단체, 대선공약 건의 <1면서 계속>

이들 단체들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목포시 일원의 국도 서남권역을 '국제자유도시'로 지정·개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반영해 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 융·복합 단지 조성'은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및 수산물 수산물 수출단지 조성, '여수 경제자유구역' 편입과 해양관광특구 지정, 경도~돌산 연륙교 건설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경 제2정비창 유치'를 통한 수리조선 특화산업 조성 및 선박 ICT 융합 장비 실증센터 구축, 요트 전문 해양레저 장비산업 육성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남 경제단체들은 "천혜의 자원과 성장잠재력 등 전남만의 고유 강점을 활용한 대선공약을 전남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삼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오늘 제안한 6대 공약은 지역민의 간절한 바람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檢, '수인번호 503' 박근혜 구속 후 첫 조사...298억 뇌물수수 등 추궁

검찰이 4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후 처음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오전 10시경부터 조사가 나섰다.

박 전 대통령 의혹 수사를 전담하는 서

울중앙지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이 직접 조사를 맡고 지원 검사 1명과 여성 수사관 1명이 배석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별도의 대기 변호사 없이 유영호(55·24기) 변호사 1명만이 입회했다.

장소는 구치소 내 교도관 사무실로 알려졌다. 검찰 요청에 따라 조사 목적에 맞게 내부 구조를 약간 바꿨다고 한다. 조사는

지난번 중앙지검 소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영상녹화 없이 한 부장검사와 검사 1명만과 유 변호사가 나란히 앉아서 조사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298억원대(약속액 433억원) 뇌물수수 혐의를 중심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강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사이의 추구 지원 등 13개 혐의 전방을 개포했다.

이날 오후 11시 50분경 구치소 하루 일과표에 따라 점심으로 중단됐던 박 전 대통령 조사는 오후 1시 10분경 재개돼 오후 6시까지 마무리됐다. 검찰은 앞으로 서너 차례 추가 조사를 벌여 구체적 혐의와 범죄 사실을 확정된 뒤 이달 17일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구속 기한은 19일까

/연남뉴스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하남동 5층 상가건물 대490㎡ 건물2,000㎡ 매 40억원
- 하남동 3층 상가건물 대990㎡ 건물1,890㎡ 매 50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한 의류점 임점 매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산정동 4층 상가건물 1,000㎡ 매24억원(보1억6천, 월1,100만 포함)
- 수원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1층 약국임점)
- 신가동 4층 상가건물(일반상업지역) 대308㎡ 건물1,861㎡ 매14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 치평동 3층 상가점포 410㎡ 매5억(보5000만, 월220만 포함)

상가주택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500㎡ 매 13억5천 (보8천/월524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246㎡ 건397㎡ 매10억5천 (보3천2백/월356만원 포함)
- 신가동 4층 상가주택 상업지역 대265㎡ 건1609㎡ 매10억5천 (보4천 월500만 포함)
- 상기 외 다수 물건 보유. 상담환영

토지

- 용전동 생산녹지, 대로접 9,400㎡ 매 48억원
- 화정동 대지 967㎡ 신세계 백화점 부근 매 50억원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3,810㎡ 20억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도로접 990㎡ 5억원
- 장성군 삼서면 흥정리 대지 1316㎡ 매4억4천(지대농음, 남향)
- 담양군 남면 학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원
- 담양군 풍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상가임대

- 장덕동 4층 빈 상가 830㎡ 4천/월450만(매매가)
- 수원동 대형 패밀리레스토랑 1200㎡ 3억/월1,500만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농성동 건물매매

- 농성동 450번지 4층 건물
- 대지165㎡ 건물488㎡
- 보 1700만 / 월 165만(임대중)
- 광고효과 최상
- 매매 4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